

## 임진왜란과 이몽학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던 사건이었다. 그 병란을 계기로 중국의 명 왕조가 몰락하고, 일본에서도 토요토미히데요시의 정권이 막을 내렸다.

전국을 피폐화시켰던 임진왜란은 의병들의 예상외의 활약에 힘입어 가까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와중에 충청도에서 나라를 뒤흔드는 반란이 일어났다. 1596년 이몽학의 난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몽학의 난을 일으킨 홍산현을 혁파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몽학(李夢鶴, ~1596)은 600여 명의 군사로 난을 일으켰고, 여러 고을을 거치면서 그 무리가 수 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거침없는 기세로, 현 왕권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수립하여 "안민정국(安民正國)"하겠다고 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조 29년(1596) 7월 10일 이몽학은 홍주로 진격해 갔다. 그러나 홍주 목사 홍가신(洪可臣, 1511~1615)을 중심으로 한 관군에 밀려 이몽학을 따르던 대부분의 무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이몽학은 부하 김정창(金慶昌), 임억명(林億明), 태척(太斥) 등에게 피살되면서 반란은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난의 주동자였던 이몽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록에는 다만 "성품이 불량하고 행실이 좋지 않다"는 정도만 전해진다. 그러나 부여 등지에는 이몽학을 다른 모습으로 그리는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몽학은 '덕림'이라 하는 곳으로 글을 배우러 다녔는데, 어찌나 총명한지 하나를 일러주면 열을 알 정도였다. 하루는 홍수로 갯벌을 건널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몽학은 아침 일찍 선생을 찾았다. 이에 선생이 홍수가 저서 배로 왕래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려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공부를 파한 후에 뒤를 따라가 보니, 유독이라는 풀을 꺾어 물에 띄운 후 타고는 화살같이 물을 건너갔다. 이를 본 선생은 "잘되면 큰 인재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망칠 것이니 내가 가르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선생은 다음날 "나는 이미 너를 가르킬 만한 능력이 없다. 너는 총명해서 나보다 아는 게 많으니 내일부터 오지 말고 더 유능하고 훌륭한 선생에게 가서 배워 나라에 큰일을 해라"하고 보냈다. 이몽학은 대답하고 그 다음날부터 오지 않았다.



洪陽清難碑



이몽학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운 홍가신 등을 제향한 청난사

설화에서 이몽학은 총명할 뿐 아니라 기인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탄생에 얽힌 이야기에서도 홍산의 비홍산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장군으로 묘사되어 있다. 민중들은 그를 단순한 반란 주모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남들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5리나 던질 수 있다거나, 상투에다 명주 1필을 매고 달려도 명주가 땅에 닿지 않고 달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힘이 세고 날렵한 이몽학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기를 바라는 민중의식의 표출이다.

'발을 매던 자는 호미를 들고 행상 하던 사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투어 따랐으며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다.」(『연려실기술』)

"이몽학은 그들에게 속임수로 꾀기를 '이번에 일으킨 의거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다.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고 하니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으며, 사람마다 스스로 고관대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성불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였다.」(『선조수정실록』 선조 29년(1596) 7월 기사)

왜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을까? 그는 당시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을 향하여 "읍내나 촌에 사는 백성들은 편안히 있고 동하지 말라. 이번 거사는 남아 있는 백성들을 수화(水火) 가운데서 구제하려는 것이다.」(『亂中雜錄』 권 2, 1596년 7월 12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몽학이 규합한 세력은 일반 백성에서 승려, 서얼 출신, 사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이렇듯 폭넓은 참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능력 때문인지, 예언의 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는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 갔던 선각자인지, 안타깝게도 그에 관한 기록은 이러한 의문을 풀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사족들까지 참여했으므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연구자들의 보다 상세한 조사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당시 의병장으로도 많은 전공을 세웠던 한현(韓鉉, ~1596)이 군인을 모집하는 명을 받아 활동을 벌이는 도중에 이몽학에 가담하였고, 난이 진압된 이후에 의병장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이 옥에 갇힌 후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곽재우의 연루설, 나아가서 서애 유성룡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이몽학의 난을 결코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임진왜란이라는 '혼란함'을 틈타 난을 일으켰다는 대역죄인'으로서의 이몽학은 역사의 패자로 남았다. 역사 기록은 승자에 의하여 굴절되기 쉽다. 하지만 민간의 구비전승은 역사적 사실의 이면에 숨어있는 민중의 의식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진실의 표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다리는 바이다. <충청학연구부>